

2023

하반기 학술대회

THE KOREAN SOCIETY OF ART AND MEDIA

인류세의 역설

Paradox of Anthropocene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관 111호)

◆ 소개의 글

이번 하반기 학술대회에서는 "인류세의 역설"이란 주제로 동시대 미술과 전시, 예술가의 활동과 작품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인류세(Anthropocene)란 용어는 1980년대부터 사용되다가, 2000년대 들어 네덜란드 대기화학자 파울 크루첸(Paul Crutzen, 1933-2021)이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인간이 지질학적으로 시기를 끝낼 만큼 지구 행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 중심적인 활동이 지구에 해를 끼치고 오히려 인간이 소외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다양한 생태와 환경문제, 생명성과 인공성, 인간과 사물, 글로벌 자본과 경제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시대 예술가들은 우리의 주된 관심 바깥에 놓인 문제와 위기를 다루며 우리의 무관심과 무지함을 파고듭니다. 또한,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함께 이를 벗어난 사물과 기술 구현의 논리, 행위자 네트워크, 나아가 생명의 확장과 혼성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인류세의 역설적 상황을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이번 하반기 학술대회에서는 이와 함께 논의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 프로그램

일정	발표 및 내용
사전행사	13:00-13:30 학회 등록
	13:30-13:50 개회선언 사회 : 이재결(중앙대) 개회사 김재남(예술과미디어학회장), 이한수(예술과미디어학회 부회장), 정수경(예술과미디어학회 부회장), 최종철(예술과미디어학회 부회장)
	학술심포지엄 1. 인류세의 역설: 예술 담론과 비평
1부	14:00-14:20 다른 자기들의 세계와 함께 살아가기 - 소보람의 생명예술을 통하여 발표자: 정현(인하대학교), 토론자: 이희정(영지대학교)
	14:20-14:40 비근대적 인식을 통한 물성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 발표자: 김주옥(서울과학기술대학교), 토론자: 조경진(연세대학교)
	14:40-15:00 허진의 '형상' 작업과 포스트휴머니즘 감수성 발표자: 이민수(홍익대학교), 토론자: 정수진(서울대학교)
	15:00-15:20 휴식
	학술심포지엄 2. 인류세의 역설: 예술적 실천과 기획
	15:20-15:40 (포스트)인류세 뮤지엄, 동시대 뮤지올로지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발표자: 조주현(연세대학교), 토론자: 주하영(전남대학교)
2부	15:40-16:00 사회적 협력 예술 프로젝트 <바람의 노래> 발표자: 오선영(독립 큐레이터), 토론자: 홍순이(EGS)
	16:00-16:15 휴식
	16:15-17:20 라운드테이블 좌장: 최종철(이화여자대학교)
	17:20-17:30 폐회선언